

金時萬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作品研究論文

# 陶磁水盤에 관한 研究

2008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工藝學科

鄭在恩

# 陶磁水盤에 관한 研究

金 時 萬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工藝學科

鄭 在 恩

# 認 准 書

鄭 在 恩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 論 文 概 要

아름다움을 통하여 그것을 생활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발생하게 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환경과 주거환경의 변화는 도시 내의 숲, 물 등과 같은 자연 요소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여유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은 경제적인 윤택함과 생활의 편리를 누리게는 하지만 이런 사회형태는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불안과 스트레스 줌으로써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아름다운 자연풍광의 산, 바위, 꽃 등을 소재로 추억과 그리움을 회상하며 개인적 경험과 의미를 부여하여 조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器)와 결합하여 자연 속의 꽃이나 식물 등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오브제적 도자수반(陶磁水盤)을 제작함으로써 생활공간 속에 소자연을 느끼며 정신적인 안정과 여유를 누리하고자 한다.

작업과정에서 태토는 작품의 크기와 표면질감, 본연의 발색을 이끌기 위해 사모트가 함유된 조형토와 철분이 함유된 세인토를 섞어 사용하였다.

표현기법은 흙의 물성이 가장 솔직하게 표현되어지는 속파기기법과 조형적인 형태미를 구축하기 위하여 컷팅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수반의 기능을 갖는 다양한 罍는 일체의 장식성을 제거하고 단순화하기 용이한 물레성형을 하였다. 유색은 자연의 깊이 있고 다양한 색의 표현을 위하여 재유, 철유, 흑유, 망간 등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덧 시유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테라시질라타(Terrasigillata), 안료, 수금 등을 사용하였다.

# 目 次

## 論文概要

I. 序 論 .....	1
1. 研究目的 .....	1
2. 研究內容 및 方法 .....	2
II. 本 論 .....	4
1. 한국 꽃꽂이와 수반의 역사 .....	4
2. 화기의 종류와 특징 .....	8
3. 試作品 製作 및 說明 .....	14
1) 製作意圖 .....	14
2) 製作過程 .....	16
(1) 태토 .....	16
(2) 성형 .....	17
(3) 유약 및 시유 .....	18
(4) 소성 .....	21
3) 試作品 說明 .....	23
III. 結 論 .....	41
參 考 文 獻	
ABSTRACT	

## 表 目 次

【표 1】 조합토의 조합비 .....	16
【표 2】 조합토와 세인토 조합비 .....	16
【표 3】 유약 조합비 .....	19
【표 4】 유약 조합비 .....	19
【표 5】 테라시질라타 조합비 .....	20
【표 6】 테라시질라타와 안료 혼합비 .....	20
【표 7】 소성 온도표 .....	21

## 圖 目 次

【도판 1】	수막새기와	11
【도판 2】	안악2 호분 <비천상> 부분도	11
【도판 3】	수덕사 대웅전벽화	11
【도판 4】	청자퇴화연류수금문칠각향로	11
【도판 5】	청화백자난국문수반	11
【도판 6】	민화 <책가도 병풍>	11
【도판 7】	민화 <책거리 병풍>	11
【도판 8】	민화 <책탁문방도>	11
【도판 9】	본능의 은유 <백지은 作>	12
【도판 10】	설산 <한홍곤 作>	12
【도판 11】	물반 고기반 <조영국 作>	12
【도판 12】	<염미란 作>	12
【도판 13】	그리움이 나간 자리 <김현식 作>	12
【도판 14】	고요 속의 외침 <조영국 作>	12
【도판 15】	0104 - 器 <이미영 作>	13
【도판 16】	뿌리 <이승희 作>	13
【도판 17】	화기2 <이재은 作>	13
【도판 18】	불완전한 선반 <Paula Winoker 作>	13
【도판 19】	비상 <전영희 作>	13
【도판 20】	Sake Set <Tom O'Malley 作>	13

## 試 作 品 目 次

【시작품 1】 청풍명월(淸風明月) .....	23
【시작품 2】 청향(淸香) .....	24
【시작품 3】 풍류(風流) .....	26
【시작품 4】 홍화(紅花) .....	27
【시작품 5】 설산 벽계수(雪山 - 碧溪水) .....	29
【시작품 6】 산림지락(山林至樂) .....	30
【시작품 7】 연하일휘(煙霞日輝) .....	32
【시작품 8】 자연(自然) .....	33
【시작품 9】 홍산(紅山) .....	34
【시작품 10】 화용월태(花容月態) .....	36
【시작품 11】 표충취우(標攄驟雨) .....	37
【시작품 12】 백화제방(百花齊放) .....	38
【시작품 13】 영산유수(靈山秀水) .....	39

# I. 序 論

## 1. 研究目的

자연을 보는 일정한 사유체계를 자연관이라 할 때, 그것은 시대와 민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또한 인간은 자연에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고,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였으며 안식을 얻는 모성적 존재로서 유지되어 왔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은 떼어 수 없는 하나이며 자연의 그 경이로운 변화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달라지게 하는 힘을 가진다.

이렇게 관조된 자연의 경이로움은 우리생활에서 동떨어진 인연이 먼 추상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상으로써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속 깊이 스며들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사랑스러운 벗이요, 우리의 삶을 충실하고 운택하게 해주는 실재이며 현실인 것이다.

본 연구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아름다움과, 장엄함, 생명감 등을 본인의 정제된 감정과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작품의 소재로 산, 바위, 돌, 꽃 등을 형상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器와 결합함으로써 꽃이나 식물 등을 담아 자연에 동화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오브제적 도자수반을 제작하고자 한다.

보는 이의 감성을 자극하고, 일상의 공간에서나마 소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조형물로 심미성(Joyful)과 실용성(Useful)을 겸한 조형적인 도자수반을 제시하여 현대 생활공간 속에 우수한 실내 조경을 연출함으로써 일정한 형식이나 틀에 얽매어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등지로 돌아왔을 때,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과 고요함을 느끼며 잠시나마 자연을 회상할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 2. 研究内容 및 方法

야나기 무네요시는 ‘역사와 자연은 예술의 어머니’ 라고 할 만큼 자연은 예로부터 인간의 관심 대상이었고, 영감의 대상이었다.

자연은 인간의 조형세계에 무한한 소재를 제공하여 왔으며, 자연에 대한 조형적 표현은 자연이 주는 감동이자 이미지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인간의 주관적 감성에서 의해 비롯되어지며, 그 심성은 인고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형식으로 재창조되고 조형화 되어 진다.

또한 자연은 인간에게 미시성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에 대한 욕망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거시적인 아름다움만 존재하고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미는 무시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는 후기산업사회에 기인하는 왜곡된 자연관 때문에 자연과 점차 단절되고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아쉬움이 교차하는 현대인의 정서를 감안하여 생활속에서 자연의 미시적 접근을 통한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따라서 자연속의 산이나 바위 등의 소재를 차용내지는 변용의 재해석 과정을 통하여 꽃이나 식물 등을 담아 두는 수반을 제작하고자 한다.

수반(水盤)이란 일반적으로 운두가 낮고 바닥이 평편하게 만든 그릇의 형태로 물을 담아 꽃이나 식물, 수석 등을 넣어 감상하도록 만든 구조물을 일컫는다. 이때의 수반은 매우 단조로운 형태를 띠며 ‘주(主)’가 되는 첨부소재(꽃, 식물, 수석 등)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부수적 역할을 하게 된다.

제작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수반이 갖던 기능이라는 최소한의 개념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器는 물레성형하고 전시 공간을 고려한 조형물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작품전체는 기존의 수반이 가졌던 실용성 위주의 단조로운 형태를 도심에서 차츰 사라져가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의 산, 계곡, 돌, 꽃 등을 형상화함으로써 미적 흥미를 유발하는 새로운 이미지의 조형성과 심미성이 강조된 도

자수반을 표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연본연의 미감 있는 다양한 소재를 조형화시킨 오브제와 수반의 기능을 갖는 다양한 형태의 기는 결합 시 수직·수평<sup>1)</sup>으로 균형감 있게 배치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도록 한다.

작업제작에 사용한 태토는 작품의 크기와 표면질감, 태토 본연의 발색을 이끌기 위해 샤모트가 함유된 조합토와 환원용 소지로서 다량의 철분이 함유되어 암갈색을 띄는 세인토를 40:60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였고, 자유롭고 세밀한 형태를 연출하기 위해 속파기 기법과 조형적인 형태미를 구축하기 위하여 컷팅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유약은 흑유를 전체적으로 시유하고 닦아내어 질감과 무게감을 강조하였고, 부분적으로 테라시질라타, 저화도 안료, 수금을 사용하고자 한다.

---

1) -A. Jaffe, 『미술과 상징』이희숙 역, 열화당, 1979, p.153

수평과 수직-인간의 직립은 수직적인 것이며, 인간이 휴식을 위하여 누워 있음은 수평적이다. 인간은 직립함으로써 활동한다. 인간의 활동에 있어서의 수직성은 현 존재에 대한 초월의지를 나타낸다. 휴식은 인간 활동의 기반이며, 따라서 수평은 수직의 절대적 기반이다.

## Ⅱ. 本 論

### 1. 한국 꽃꽂이와 수반의 역사

꽃꽂이의 기원은 원시종교의 양식이나 무당의 굿에서 조화나 생화를 제단에 바침으로써 신과의 근접을 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삼국시대 꽃에 대한 기록은 현존하는 것이 없으나 무속 신앙에 의한 꽃꽂이와 불교전래에 의한 불전 공화의 형식이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이 외에 꽃에 대한 미감을 살필 수 있는 것으로는 운화문전(運花文塼)<sup>2)</sup>, 당화문전(唐華文塼)<sup>3)</sup>, 인동문전(忍冬文塼), 새상화문전(賽相花文塼) 등에서 보이는 꽃의 기하학적인 미와 또는 추상화된 미는 당시 사람들의 세련된 미관을 나타내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sup>4)</sup>

화기와 꽃꽂이는 절대적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꽃꽂이의 발생은 곧 화기의 발생을 뜻하기도 한다.

고대에는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에도 원시종교에 의한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무당을 통하여 여러 목적에 의한 굿을 하였는데 이러한 굿을 할 때 무당의 모자에 꽂는 조화와 제단에 꽃을 꽂은 것이 꽃꽂이의 단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후 우리나라 꽃꽂이는 불교 의식에서의 佛前 供化 형태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전 공화로서의 꽃은 예술성을 띄기 보다는 실용적인 필요에 의한 종교 의식의 일부분으로 쓰여 졌으며 삼국시대에 들어와 공양되었던 신성한 꽃은 점차 장식적인 성향을 띄며 꽃꽂이의 예술로서 독자적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은 단계에 들어서고 감상을 위하여 변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화기는 역사적 의미

2) 운화문전(運花文塼): 다양한 꽃의 문양과 형상을 새긴 후 구워서 만든 벽돌(전)이다.

3) 당화문전(唐華文塼): 당나라 그림의 문양과 형상을 새긴 후 구워서 만든 벽돌(전)이다.

4) 고희수, 『한국 꽃꽂이 역사』, 하수출판사, p.166

를 떠나 개인적 취미에 의하여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알 수 있다.

## 1) 삼국, 통일신라시대

고대 삼국시대에 사용된 꽃꽂이용 화기는 그 증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물증과 문헌은 희박하나 <三國有事>중 헌화가나, 고구려 벽화, 신라의 달 상징 수막새기와<sup>5)</sup> 백제의 토기 등에서 제례의식으로써의 꽃꽂이 형식과 그에 따른 기명 도예로부터 화기에 꽃을 꽂고 즐겼음을 알 수 있다. 【圖1】

삼국시대에 특히 고구려는 중국으로부터 불교와 불교의식의 부분인 불전공화의 전래로 독특한 양식을 갖춘 꽃꽂이가 등장하였다. 초기의 꽃꽂이 형태는 여러 고분벽화에서 나타나는 꽃꽂이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추이해 볼 수 있다.

삼국시대 수반의 꽃꽂이 그림으로는 고구려 시대 고분벽화 안악2호분의 현실 동벽에 있는 비천상으로써 선과 공간의 처리가 두드러진 작품이며 비천하는 선녀의 손에 연꽃이 꽃혀 있는 수반을 들고 하늘을 나는 선녀모습에서 삼국시대에 이미 수반 꽃꽂이의 형식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圖2】

## 2)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숭불의 정책이었던 만큼 자연적으로 꽃꽂이에 있어서도 불화인 연꽃이 그 대상이었다. 이 시대의 특징으로는 종교 의식의 일부인 공화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감상 분위의 꽃꽂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감상 분위의 꽃꽂이는 안방으로까지 전해져 부녀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고려청자의 발달과 더불어 꽃꽂이용 화기의 모양도 단순한 형태에서 더욱 장식적인 것이 되었다. 고려청자의 표현 감각에는 분명히 일품공예적인 요소와 불교적인 취향이 짙게 풍겨져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팽창된 양반 계층은 이러한 고급 공예 내

---

5) 수막새기와: 사찰 건물 중 기와로 덮은 지붕의 추녀 끝에 위치하는 특수한 기와로서 낙수물을 효과적으로 흘리는 것과 함께 건물의 미관을 돋우려는 의도로 만들어 졌다

지는 꽃의 수요를 격증시켰으며 또 꽃꽂이용 그릇으로 고려청자가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한국 꽃꽂이의 조형미의 확대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기여일 수도 있으니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이다<sup>6)</sup>.

고려시대 송나라 사신으로 다녀간 서공의 고려도경 3권 2기에 <花毫>라는 제목에 대한 기록을 보면 화기의 형태와 모양을 알 수 있는데 고려 시대에, 화병으로 제작된 작품 이외에도 안방의 장식적인 용기들로 꽃꽂이에 사용되며 그 외 생활 용기들도 꽃꽂이용 화기로 혼용된 듯하다. 수반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그림으로는 수덕사 대웅전 벽화 수생화도에서 연꽃 모양의 수반에 봉오리, 잎과 줄기들을 좌우대칭으로 꽃을 꽂아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어 수반 꽃꽂이 형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圖3】

또한 불교문화의 융성과 화기로서 고려청자의 발전은 꽃꽂이의 표현영역을 확대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장식적인 고려청자의 생활용기 중 발(鉢) 등이 수반의 대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圖4】

### 3)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한 고려청자가 조선시대에 들어 쇠퇴하였고 유교사상의 소박하고 겸허한 기풍이 바탕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연스런 미가 흐르는 백자가 서민들에게 널리 보급 되었다. 이로서 특수 계층인 귀족들의 소유물이었던 고려청자와는 달리, 누구나 쉽게 소유할 수 있는 백자의 출현으로 다양한 화기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커다란 백자호에 꽃과 가지 등을 넣은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sup>7)</sup>, 찬시(讚詩)가 곁들여진 돌과 꽃과 괴목의 문인화, 커다란 꽃바구니에 야생화들이 어우러진 반월수반화 등에서 화기와 수반의 형태를 알 수 있다.

또한 여러 그림과 문양에서도 꽃에 대한 선호도를 엿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6) 고희수, 『한국 꽃꽂이 역사』, 하수출판사, p.190.

7)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 여러 가지 그릇과 꽃가지, 과일 따위를 섞어서 그린 그림

그려진 병화도(瓶花圖)<sup>8)</sup>, 화훼도<sup>9)</sup>, 책거리<sup>10)</sup> 등에서 볼 수 있는 민화나 풍속도, 병풍 등을 보면 그 당시 다양했던 꽃꽂이와 수반의 형태를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조선시대는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생활 용기와 장식용품의 수반이나 수반대용의 화병과는 달리 자유롭고,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다. 【圖5.6,7,8】

---

8) 병화도(瓶花圖): 꽃병에 꽂아 놓은 꽃을 그린 그림

9) 화훼도: 꽃을 주제로 그린 그림

10) 책거리: 민화의 하나로 책, 부채, 향로, 도자기 등을 화재로 그린 그림

## 2. 화기의 종류와 특징

화기(花器), 즉 꽃을 꽃을 수 있는 그릇으로써 꽃을 더욱 아름답게 함은 물론 꽃을 더욱 오래 지속시켜 주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특히 근래에 와서는 현대 생활 속에 꽃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어 화기의 형태나 재료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화기는 꽃의 구성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꽃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분위기를 한층 돋을 수 있는 실내 조형물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면 좋다.

화기는 일반적으로 병 꽃꽂이를 하는 병 종류와 수반 꽃꽂이를 하는 수반 및 콤포트로 구별할 수 있는데 도자기의 발전과 함께 화기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형태상으로 병(瓶), 호(壺), 반(盤), 콤포트(compote), 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변형된 오브제를 응용한 화기가 첨가된다.

### 1) 병(瓶)

병은 흔히 꽃병, 화병으로 불리는 것으로 입이 좁고 목이 높은 것으로 침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데<sup>11)</sup> 꽃을 꽂는 용도를 가지는 기의 형태 중 대부분 병 꽃이를 떠올릴 만큼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이 화병이다.

고려시대 화병으로는 매병, 과형병, 등 기타 여러 형태의 조형성이 가미된 병이 쓰였다. 우아하고 풍만한 양감과 섬세한 곡선미를 지닌 매병은 술병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하나, 명칭과 조형으로 볼 때 매화 가지를 꽂는 병으로 볼 수 있다. 과형병은 참외같이 생긴 꽃병을 말하는데 비례감이 우수하며 단순하면서도 섬세한 장식성이 아름다운 화병이다. 조선시대에는 백자 및 분청을 비롯하여 다양한 화병이 만들어졌는데 고려시대의 것보다 소박한 멋과 선을 지녔으며 서민적인 성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화병들이 보여 진다. 이 시대에

---

11) 전재현 공저, 『현대사계꽃꽂이』, 오성출판사, P134

는 병의 기능을 갖는 그릇을 이용하여 자연스레 꽃을 꽂는 것이 유행하였다.

병은 입과 폭이 좁고 높이가 있는 것으로 원통형, 사각형, 목이 긴 것 등 모양이 다양하며, 꽃을 꽂는 형태로는 달항아리의 형태도 좋지만, 기초화형을 다룰 때는 전부분과 아래 바닥 부분이 비슷한 형태가 쓰기 좋으며, 선을 살려 동양적인 꽃꽂이로 아름다움을 표현해 낼 수 있다.

현대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조형성을 가미한 화병이 있다.

## 2) 호(壺)

호는 항아리를 말하며 고대 중국 용기의 한 기형으로 목이 약간 길고 입이 벌어진 형태로 술을 넣는데 쓰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도경에 화호(花毫)라는 제목의 글을 통하여 형태와 특징을 알 수 있으며 화기로도 널리 쓰이고 있다.

## 3) 반(盤)

쟁반이나 대접처럼 운두가 낮고 바닥이 편평하고 넓은 그릇을 통틀어 말하며<sup>12)</sup>, 원형, 타원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삼각형, 배형, 접시형, 반달형 등이 있고, 가정에서는 항아리의 뚜껑을 반의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반을 이용한 꽃꽂이는 입체적으로 양감이 풍성하고 다양한 풀꽃들을 꽂기에 용이하다. 그러나 화기는 꽃을 꽂는 용도 외에도 관상적인 용도를 갖는 기명이므로 식기나 저장기에 비해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주로 침봉을 이용한 꽃꽂이를 할 때 많이 사용되며 꽃꽂이의 기본형을 익히기 용이하므로 초보자들이 애용하는 화기이다.

---

12) 전재현 공저, 『현대사계꽃꽂이』, 오성출판사, P134

#### 4) 콤포트(Compote)

수반이나 병보다는 조금 더 현대적인 감각을 지닌 화기로서, 원형이나 각형의 크고 작은 것이나 옆으로 긴 것이 많으며 수반에 굽이 달린 형태를 말한다. 원래 서구에서 식탁용으로 과일을 담던 굽 달린 접시로, 수반과 병의 중간으로 그 형태가 재미있는 것이 많으며, 오브제적인 분위기를 지닌다.<sup>13)</sup>

콤포트의 입구가 넓으면 다리가 낮아지고, 입구가 좁으면 다리가 길어지는데, 이것은 꽃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금 더 현대적인 감각을 지닌 화기로서, 수반 같이 폭이 넓고 길이가 짧은 형태에 다리가 달린 모양이 일반적이다. 수반이나 화병보다 형태나 색채상 변형이 많고, 꽃을 꽂았을 때 화려함을 더 할 수 있어 콤포트 자체가 꽃꽂이 분위기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 5) 변형화기

예로부터 내려오는 화기가 많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꽃꽂이의 소재가 확대되고, 추상적인 표현과, 묘사가 늘어남에 따라 수반, 병, 콤포트 등 기존의 화기로는 작품성을 살리기가 힘들게 되어 새로운 형태나 색채를 지닌 현대화기가 늘어나게 되었다.

화기에 포함시킬 수 없는 다른 용도의 기물이거나 또는 수반, 병, 콤포트 등의 모양을 크게 변형시켜 전혀 다른 느낌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써<sup>14)</sup> 심미적이고 조형성을 겸하여 공간 장식성을 가미한 다양한 소재의 현대적 감각을 갖는 변형 화기는 특히 꽃보다도 화기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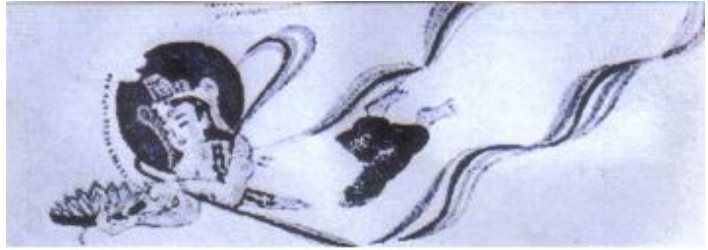
13) 김광수, 박학봉 공저, 『화훼장식과 꽃꽂이』, 아카데미서적, p.65

14) 동아출판사백과사전, 『동아원색세계백과사전3』, 동아출판사, p.57

## 참 고 도 판



【도판 1】 수박새기와  
(신라시대)



【도판 2】 안악2호분 <비천상>부분도  
(고구려시대)



【도판 3】 수덕사 대웅전벽화  
(고려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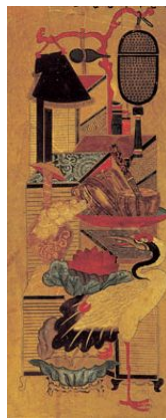
【도판 4】 靑磁堆花蓮柳水禽  
文七角香爐(고려시대)



【도판 5】 靑華白磁蘭翰文水盤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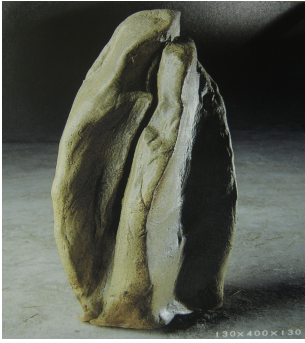
【도판 6】 민화  
책가도 병풍



【도판 7】 민화  
책거리 병풍



【도판 8】 민화  
책탁 문방도



【도판 9】 본능의 은유, 백지은 作,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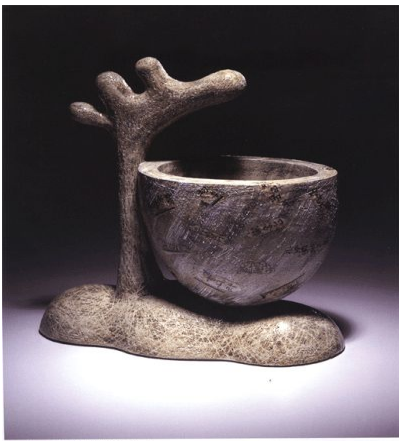
【도판 10】 설산, 한홍곤 作, 2003



【도판 11】 물반 고기반, 조영국 作, 1993



【도판 12】 염미란 作, 2004



【도판 13】 그리움이 나간 자리, 김현식 作



【도판 14】 고요속의 외침, 조영국 作,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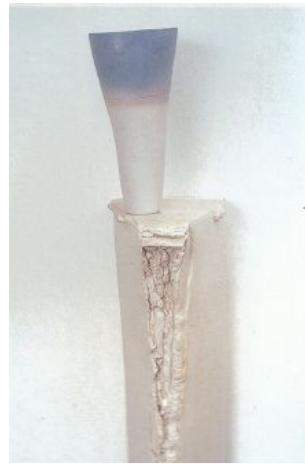
【도판 15】 0104-器, 이미영 作 , 2006



【도판 16】 뿌리, 이승희 作 , 2005



【도판 17】 화기 2, 이재은 作, 2005



【도판 18】 불안정한 선반,  
Paula, Winoker 作, 1991



【도판19】 비상, 전영희 作 , 2006



【도판20】 Sake Set, Tom O'Malley 作 ,  
2004

### 3. 試作品 製作 및 說明

#### 1) 製作意圖

주거문화가 아파트 중심으로 바뀌면서 자연은 많이도 변화하였지만, 우리는 쉬이 느끼지 못하며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우연치 않게 아버님을 여의고 생전을 생각하며 들리던 아버님의 산소에서 자연의 아름다운 정취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담아 둘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기획하게 되었다.

그리고 단지 아름다운 풍광만이 아니라,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까지 담을 수 있는 수반은 생각만으로도 위안과 정서적인 힘을 충전시키는 작업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의 이미지를 본인의 정제된 경험을 통하여 조형화하고 인공적인 기의 결합을 통해 도자수반을 제작하여, 기존의 기능위주였던 수반을 탈피하고 실내 공간에서 소자연을 도입하며 심미적 기능과 조형미를 겸한 오브제적 도자수반의 제작을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실천하였다.

첫째, 참고도서와 문헌 및 시장조사를 통하여 과거와 현대의 수반제작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 과거: 과거에는 종교적 의식에서의 꽃꽂이 용도로 사용되어 만들어 졌다.
- 현대: 현대는 공장과 공방을 중심으로 생산되어 사용하고 있다.

①공장을 중심으로 제작되는 수반은 대량 생산으로 인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는 있으나 청자와 백자 등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종류의 한계를 보였다. 또한 외래품을 모방하고 독창성이 결여된 것들이 많았다.

②공방에서 제작되는 수반은 질과 장식성이 우수하지만 수공예적인 성격으로 일반화 되지는 못했다.

현재 기존의 수반은 재질과 종류는 다양하지만 실용성과 조형성을 겸한 공예

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매우 드물었다. 그러므로 공간 구성에 부합하고 심미성을 가미하여 미적효과를 겸한 기능성 있는 디자인을 시도하여 도자수반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연을 통한 정제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지화한 기본적인 형에, 점토가 가지는 다양한 물성표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조형화하기에 중점을 두었다. 흙이 갖는 순수한 물성을 이용하여 인위적인 외압을 가하고 그 힘에 의해 나타나는 접힘, 비틀림, 잘려나감, 터짐, 뜯어짐, 갈라짐 등 의한 질감을 작업에 사용해보고자 하였다.

셋째, 수반의 용도를 갖는 다양한 器의 형태를 물레성형하여 인공적인 느낌으로 제작하고 자연의 이미지를 형상화 시킨 오브제와 합성함으로써 인공과 자연의 결합을 통한 조형미를 부각시켰으며, 수직 수평의 형상으로 없어 시각적으로 자연스러움과 편안함, 안정감을 주도록 유도하였다.

위의 제작과정을 통하여 주변 환경과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잘 조화될 뿐만 아니라, 미적 흥미를 유발하고 개성적인 조형미가 가미된 새로운 개념의 수반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 2) 製作過程

### (1) 胎土

작품의 크기와 표면의 섬세하고 다양한 질감을 고려하여 점력이 좋고 다량의 샤모트가 함유된 조합토와, 태토 본연의 발색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환원용 소지로서 소지내에 굵은 다량의 철분이 함유되어 붉은 황갈색에서 암갈색을 띄는 세인토를 40:60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건조와 소성시에 형태와 균열 등을 최소로 줄이고자 하였다.

〈표 1〉 조합토 조합비

(단위:%)

원 료	조 합 비
장 석	5
규 석	15
도 석	20
중 국 점 토	35
카 오 린	15
규 회 석	3
샤 모 트	7
계	100

〈표 2〉 조합토와 세인토 혼합비

(단위:%)

태 토	혼합토 I	혼합토 II
조합토	50	60
세인토	50	40
계	100	100

## (2) 成形

수분을 함유한 태토를 외각의 유연한 선과 면을 고려하여 줄로 컷팅하고 덩어리 감을 최대한 표현하였다.

흙의 물성적 특성 중에 점토가 늘어나면서 갈라지는 표면을 이용하여 자연스런 자연 이미지(산, 계곡, 바위, 꽃등)를 성형하고, 자유롭고 세밀한 형태를 연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두드리거나 힘을 가하고, 흙덩어리를 바닥에 쳐서 늘어트려 재 컷팅을 통해 비례 감 있는 형태를 구축한 후, 형성된 굴곡이나 질감의 효과들이 변형 되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조절하여 속파기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수반의 용도를 갖는 ‘기’의 형태는 좌우대칭의 원형 형태를 띠는 병, 발, 반형 등으로 단조롭게 물레 성형을 하여 자연을 이미지화한 조형위에 엮었을 때 자연스런 형태와 인공적인 형태의 조화로운 조형적인 결합의 구축을 유도하였다.

### (3) 釉藥 및 施釉

작품 전체는 자연 이미지를 형상화한 조형물과 수반의 기능을 갖는 다양한 기의 형태를 결합 시킨 오브제적 도자수반이다.

자연 이미지를 형상화한 조형물의 유약 처리는 유광·무광 흑유를 전체나 일부분에 겹쳐지도록 작품 전체에 기본적으로 이중시유를 하였고, 장식적인 표면 처리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효과적인 요철을 나타내고자 1차적으로 시유한 후 붓을 이용하여 유약의 일부를 털어내고 질감 표현을 강조한 후 채유, 청자유, 적철유, 코발트유, 단풍유, 망간유 등을 여러 겹 덧칠하거나 분무 시유함으로써 깊이 있고 자연스러운 자연 이미지를 유도하였다. 또한 테라시질라타<sup>15)</sup>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런 질감 표현을 하였고 수금을 이용하여 부분적 강조를 하였다.

그리고 수반 기능을 갖는 다양한 형태의 ‘기’는 조형물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같은 유약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형태와 시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고, 흘림기법과 이중 삼중 등 여러 차례 겹쳐 시유하였다.

---

15) 김병억, 『도예장식기법』, 태학원, p.118

테라시질라타(Terra - Sigilata) :처음에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로마의 도공들이 얇고 광택이 있는 도자기의 표면질감을 얻기 위해 사용하였다. 불 클레이(Ball clay)와 물과 탄산소다를 섞은 후 1주일 정도 놓아두었다가 윗물을 제거하고 남은 1/3정도의 흙물이 바로 테라시질라타이다. 소성온도는 1050℃~1100℃ 정도에서 산화염으로 저온 소성한다.

〈표 3〉 유약 조합비

(단위:%)

원료구분		유 약				
		백매트	철재유	철유	코발트유	살구점박 이유
원료명	화학식					
카리장석(인도)	$K_2O \cdot Al_2O_3 \cdot 6SiO_2$	40.0	43.5	48.0	62.0	40.0
석회석(금산)	$CaCO_3$	16.0	3.5			20.0
카올린(인도네시아)	$Al_2O_3 \cdot 2SiO_2 \cdot 2H_2O$	3.0	17.4	22.0	9.3	15
규석(부여)	$SiO_2$		3.5	4.0	2.7	13
백운석	$CaCO_3 \cdot MgCO_3$		19.1	22.0	21.0	
탄산바륨(중국)	$BaCO_3$	28.0				
산화코발트	$Co_2O_3$				0.5	
산화철	$Fe_2O_3$		4.3	4.0	4.5	2
산화티탄	$TiO_2$	13.0				20
재(wood ash)			8.7			
계		100.0				

〈표 4〉 유약 조합비

(단위%)

원료구분		유 약				
		무광 흑유	칭자유	단풍유	적철유	골드 망간유
원료명	화학식					
카리장석(인도)	$K_2O \cdot Al_2O_3 \cdot 6SiO_2$	40	37.7	40	42.4	5
석회석(금산)	$CaCO_3$	19	19.5	4	6.3	
카올린(인도네시아)	$Al_2O_3 \cdot 2SiO_2 \cdot 2H_2O$	20	12.1	7	5.8	
규석(부여)	$SiO_2$	6	28.7	37	18.9	
활석	$3MgO \cdot 4SiO_2 \cdot H_2O$			12	5.4	
골회	$Ca_3(PO_4)_2$			10	9.4	
산화크롬	$Cr_2O_3$	3				
산화망간	$MnO_2$	2				35
산화동	$CuO$					5
산화코발트	$Co_2O_3$					3
산화철	$Fe_2O_3$	9	2.0	15	11.8	
볼클레이						4
옹기토						48
계		100.0				

<표 5> 테라시질레타 조합비

(단위%)

원 료	조합비
볼클레이	32.5
탄산나트륨	2.0
물	65.65
계	100

<표 6> 테라시질레타 안료 혼합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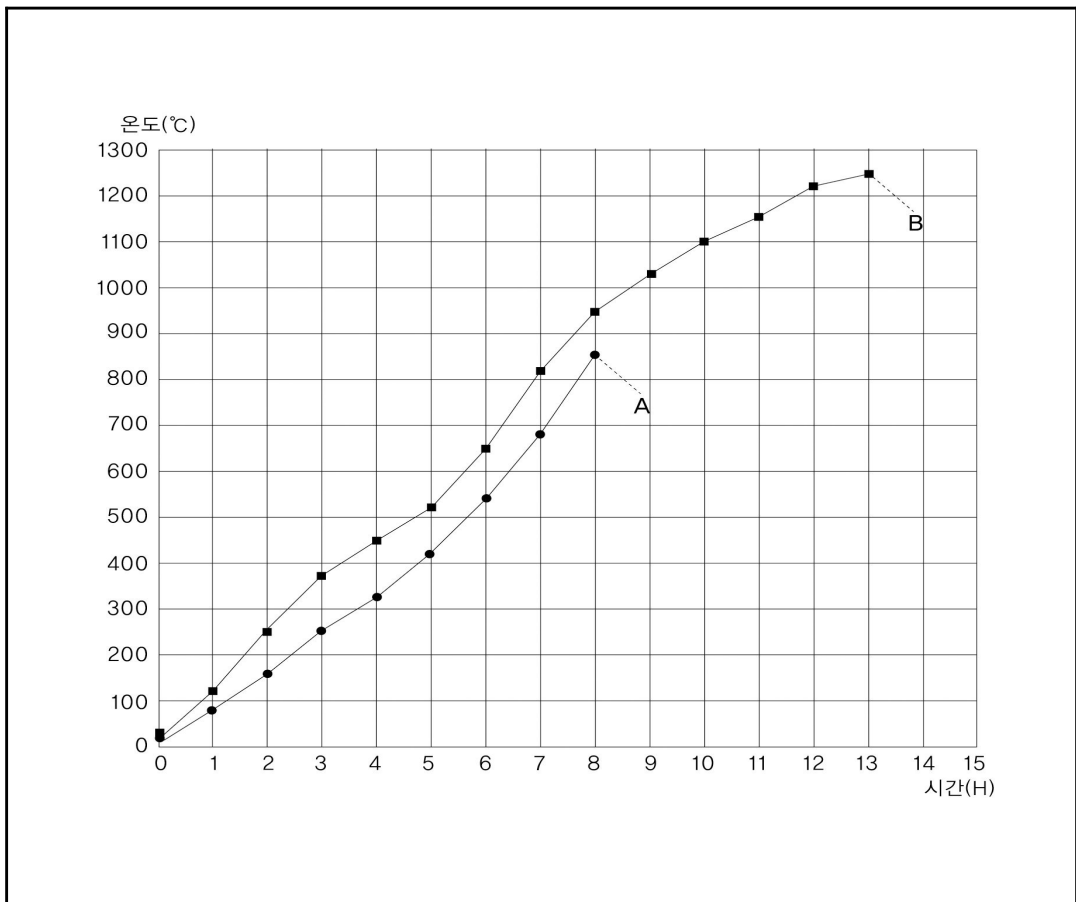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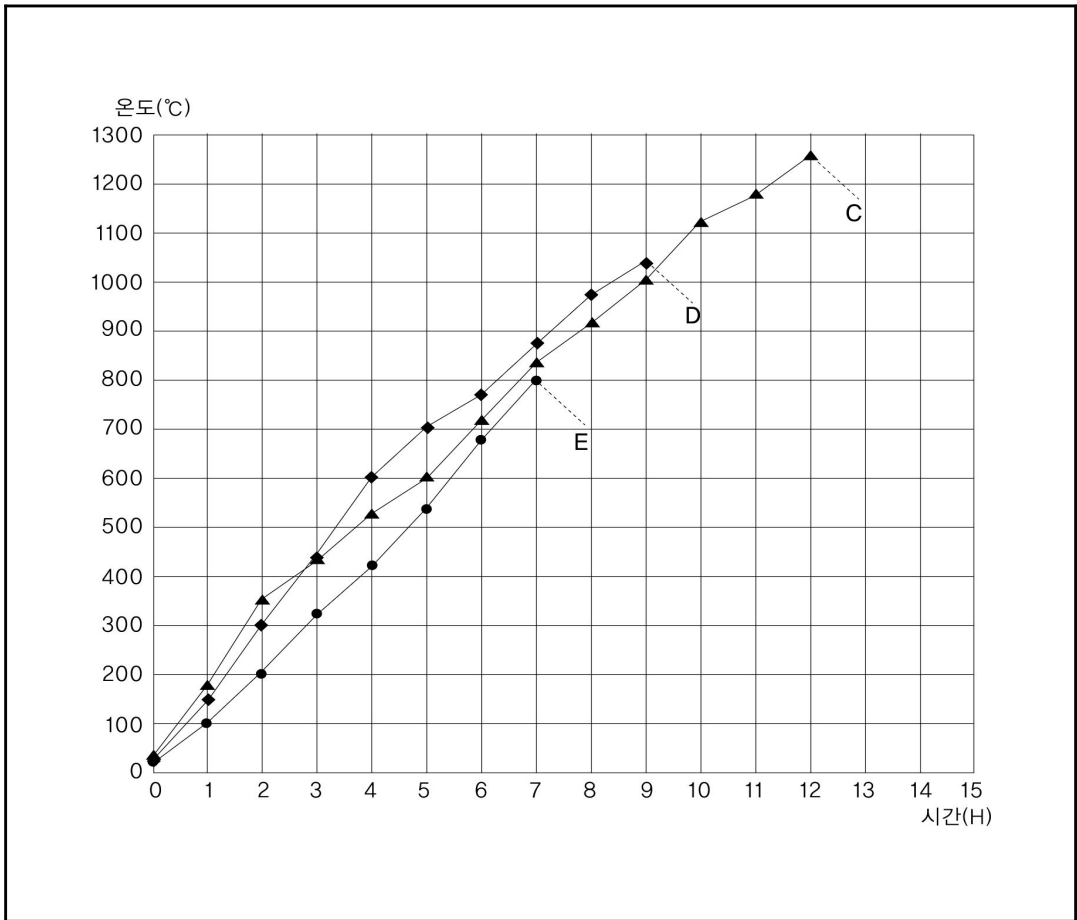
안료명 재료	H-120 Blue	H-200 Yellow	H-460 Brown	H-710 Gray	L White	H-26 Orange
테라시질라타	70	75	65	60	90	70
안료	30	25	35	40	10	30

#### 4) 燒成

소성 방법은 1.0m<sup>3</sup> 가스가마에 약 850℃까지 8시간 1차 소성을 하였고, 2차 소성은 증후느낌과 발색을 기대하고자 13시간 동안 1250℃내외로 산화와 환원 소성을 하였다. 3차 소성은 효과적인 질감을 나타내주기 위해 테라시질라타를 붓으로 얇게 여러 번 칠한 뒤 1050℃로 소성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하이라이트를 주고자 수금을 사용하여 4차 소성을 하였다.

〈표 7〉 소성 온도표





A : 1차 소성      B : 2차 소성 (산화)      C : 2차 소성 (환원)

D : 3차 소성 (테라시질라타)      E : 4차 소성 (수금)

#### 4) 試作品 説明

##### 【시작품 1】 청풍명월(淸風明月)



흑유, 적철유 · 테라시질라타 (white)·1250℃ · 산화소성 · 587×428×255mm

【시작품 2】 청향(清香)



흑유 · 테라시질라타 ( H-26orang ) · 1250℃ · 환원소성 · 183×379×148mm

## 【시작품 1】 청풍명월(淸風明月)

어릴 적 먼 산속 바위 위에서 청명하게 빛나는 보름달을 오랜 시간 구경한 경험이 있다. 마치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듯 했던 푸근하고 은은한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수많은 상념을 떠올렸던 기억들을 소재로 조형화하였다.

제작방법으로는 점토를 줄로 커팅하여 자연스러운 바위의 형태를 형상화 한 후, 그 표면에 달빛으로 인해 비쳐지는 나뭇가지위의 달에 모습을 각종 도구를 이용하여 찍는 기법으로 나타내었고, 기능을 갖는 수반의 형태를 물레성형하여 보름달을 상징 하고자 하였다.

유약은 무광흑유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시유한 후 부분적으로 유광흑유를 분무시유하여 덩어리감을 강조 하고, 2차 소성후 흰색 테라시질라타를 발라 1050℃에서 3차소성을 하였다. 수반의 기능을 갖는 罏는 매트백유로 시유하여 조형물의 질감에 쓰인 흰색 테라시질라타의 느낌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자 하였다.

## 【시작품 2】 청향(淸香)

너무 고요하고 서로 조화로워 느껴지지 않지만, 숲속의 나무나, 꽃, 물, 돌, 등에도 저마다의 향기가 있다. 이러한 자연의 향기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기도 하고 어떠한 시간의 기억과 느낌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는데, 그 중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진 자그마한 돌덩어리들을 통하여 느꼈던 시간속의 향기를 이미지화하고, 수반의 기능을 갖는 기는 긴 원통 형태로 물레성형하여 자연스럽게 접목 하였다.

작품 전체는 흙의 물성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돌을 형상화하고, 기능을 갖는 기를 단조롭고 인공적으로 제작함으로써, 자연과 인공의 결합을 유도하여 조형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하였다.

전체를 흑유로 시유한 후 오렌지색과 준 보색인 파랑색의 테라시질라타를 사용하여 온화함과 시원함을 주는 향기를 색채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시작품 3】 풍류(風流)



흑유, 적철·테라시질라타(H-460brown), 1250℃ · 환원소성 · 510×251×360mm

【시작품 4】 홍화(紅花)



흑유, 철재유, 단풍유, 청자유, 살구점박이유 환원소성 · 349×513×349mm

### 【시작품 3】 풍류(風流)

영원할 것만 같은 암벽의 부동함도 세월의 풍화와 침식작용 등에 의해 시시각각 끝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

비바람을 맞으며 암각에서 먼지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은 자연이 주는 시련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의 탄생이며 생명체로써 인간의 모습과도 유사함을 보이며 이 또한 즐거움으로 느껴진다.

암벽을 면과 선으로 비례감이 있도록 구성하여 형상화 한 후, 암석과 자연스런 흙의 맛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1차적으로 흑유와 적철을 시유하고 부분을 닦아 태토 본연의 색감과 질감을 강조하였고, 오렌지와 브라운의 따뜻하고 풍부한 색감의 테라시질라타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연이 그렇듯 오랫동안 싫증나지 않는 편안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시작품 4】 홍화(紅花)

장마 비가 내리고 난 후, 빗물에 의해 더욱 붉은 빛을 띤 꽃이 있는 산과 계곡의 풍경을 소재로 형상화 하였다.

수반의 기능을 갖는 기의 형태를 시유함에 있어 쓰임을 갖지 않을 시에도 조형적 관상의 개념을 부각시키고자 흘림기법을 이용하여 2중 시유를 함으로써 변화와 재미를 주도록 유도하였다.

【시작품 5】 설산-벽계수(雪山 - 碧溪水)



흑유 · 매트백유 · 테라시질라타(white) · 1250℃ · 환원소성 · 500×330×345mm

【시작품 6】 산림지락(山林至樂)



흑유, 적철유, 시노유 · 1250℃ · 환원소성 · 650×720×405mm

## **【시작품 5】 설산-벽계수(雪山 - 碧溪水)**

겨울산의 적막함 속에서도 쉽 없이 길게 줄기를 이루며 낙하하는 계곡을 이미지화하여 표현 하고자 하였다.

제작방법으로는 흙의 덩어리를 두들겨 바위의 형상을 표현하고, 낙하하는 물줄기의 이미지를 각종도구를 이용하여 한쪽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찍어줌으로써 시각적 분산을 막고 힘차게 낙하하는 물줄기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수반의 기능을 갖는 기의 형태는 물레성형하여 조형물과의 결합 시 수직수평으로 균형감 있게 배치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주도록 유도하였다.

## **【시작품 6】 산림지락(山林至樂)**

종종 세상에 지쳐 심신을 맡기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마음을 달래주며 토닥여주시는 부모님의 품은, 맑고 푸르름으로 세상을 품는 산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산만큼이나 크신 부모님의 품과 바라보기만 해도 지극히 즐거우며 아늑한 쉼터를 주는 산의 형상을 두 개의 덩어리와 수반의 기능을 갖는 기를 안정감 있게 결합하고 공간을 만들어 형상화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쉬어가는 공간과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3개 덩어리의 크기를 조절하고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2중 3중 시유하여 분산된 구조를 집중시키고, 공간을 살린 자연스런 하나의 조형물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시작품 7】 연하일휘(煙霞日輝)



흑유, 시노유, 동유 · 1250℃ · 환원소성 · 248×239×122mm

물, 흙, 바람, 산 그리고 동굴 등의 자연물은 각가지 자연의 소리와 함께 인간을 휴식으로 안내하는 가장 쉽고 가까운 수단이 되어준다. 그 중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안식과 포근함을 동굴의 형상을 통하여 표현해 보았다.

제작방법으로는 아치형으로 흙의 덩어리를 성형하고 공간을 좁으로써 여유와 휴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부분에 시노유를 집중적으로 흐르게 시유하여 안개와 노을이 햇살에 어우러져 신비스런 느낌을 주는 동굴입구의 풍경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시작품 8】 자연(自然)



흑유, 시노유, 매트백유, 동유· 1250℃ · 환원소성,

48×239×122mm

작은 바위는 주변에 흔하게 있지만, 그 크기나 생김새는 각기 다른 모습을 띄고 있는데 역삼각형의 불안정한 형태를 띠는 바위를 조형화하여 수반의 기능을 갖는 기의 형태를 구의 3분의2에 가까운 형태로 몰래성형하여 결합함으로써 안정감을 갖도록 제작하였다.

식물을 꽃음에 있어서도 작품의 형태와 자연스럽게 시선이 흐르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시작품 9】 홍산(紅山)



흑유, 적철유, 단풍유, 철재유 · 1250℃ · 환원소성 · 395×419×238mm

## 【시작품 9】 홍산(紅山)

자연의 또 다른 경이로움을 뽑는다면 계절에 따른 아름다운 색채의 향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을산의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고 있노라면 누구에게나 아련한 추억하나 짝은 간직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단풍으로 붉게 뒤 덮힌 산의 형태를 축소하고 변화, 통일, 반복, 강조 등의 조형요소로 면과 선을 구성하여 소자연을 옮겨 놓은 듯한 이미지를 형상화 하고자 하였다.

조형물의 전체적인 형태가 길고 뾰족하기 때문에 수반의 기능을 갖는 기를 제작하여 결합함에 있어 불안정해 보였으므로 바닥의 자연스런 요철과 만나는 면에 끼워 놓았다.

전체의 형태는 안정감 있게 표현하고 단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작은 기를 위험스럽게 엮음으로써 삼각구도를 형성하도록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감과 긴장감을 주고자 하였다.

【시작품 10】 화용월태(花容月態)



철재유, 매트백유, 흑유·수금·1250℃·환원소성·620×575×320mm

어릴 적 동심의 눈으로 바라보던 꽃은 언제나 아름답고 밝은 미소를 띠며, 상상의 나라로 이끌어 주는 안내자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바라보는 꽃은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마음을 매료시키며 닳고 싶은 자태로써 가까이에 두고 싶은 마음을 조형화하여 표현 하였다.

【시작품 11】 표충취우(標撞驟雨)



흑유, 매트백유, 철재유, 살구점박이유, ·1250℃ · 환원소성 · 320×410×156mm

절벽위에 급속히 몰아치는 비바람을 이미지화하였다.

제작 방법으로는 절벽이 침식되어 형성된 흔적을 강조하기 위하여 태토가 적당히 말랐을 때 부분 부분을 토치로 급 건조 시켜 바닥에 쳐 줌으로써 갈라지고, 터지고, 비틀어지는 흙의 물성을 그대로 살려 천천히 건조 시킨 후, 속과기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시작품 12】 백화제방(百花齊放)



철재유, 동유, 흑유·수금· 1250℃ · 환원소성 · 345×420×145mm

언덕위의 꽃들이 일제히 피어나서 변화하고 무성한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제작방법으로는 활짝 피어난 꽃들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눌러 표현하였고, 유약은 동유를 환원소성 하여 깊고 은은한 붉은색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수금을 이용하여 3차 소성함으로써 꽃들이 만개한 느낌을 더욱 강조하였다.

【시작품 13】 영산수수(靈山秀水)



청흑유, 코발트유, 적철유, 절재유 · 수금 · 1250℃ · 환원소성 · 520×710×310mm

하늘과 맞닿은 듯한 폭포수의 모습은 설화 속에 나오는 황홀한 느낌의 절경으로 옛 선비의 신선놀음 장소로 느껴진다.

한번쯤 일상에서의 탈출을 갈망하며 유토피아적 세계를 꿈꾸는 이상을 담아 조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 Ⅲ. 結 論

오늘날 인구의 급증과 산업화로 인한 자연 파괴는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빈곤과 인간성 상실을 낳게 되었으며, 그 위안으로 자연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느끼며 동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욕구 충족의 방법으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느꼈던 아름다운 자연풍광의 감흥을 산, 바위, 꽃 등을 소재로 개인적 경험과 의미를 부여하여 형상화하고 다양한 형태의器皿와 결합하여 꽃이나 식물 등을 담은 오브제적 도자수반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는 삭막해진 공간의 지치고 힘든 현대인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의미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활력과 휴식을 마련하는 계기를 갖게 하였다.

연구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자연이 주는 정서적 감흥과 아름다움을 통하여 자신의 심성과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조형하는 과정에서 자연이라는 소재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둘째, 기존에 있던 단순한 기능성 위주의 수반에서 벗어나 심미감과 조형미를 모색함으로써 쓰임과 감성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술적 의도를 지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셋째, 오브제적 도자수반이라는 심미적 특징에 부합하기 위해 형태나 색감이 다소 화려하게 표현되어졌는데, 주변 환경과 쓰임에 있어서 유색선택이 기능에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앞으로 이번 연구는 획일화된 쓰임 위주의 생활용기에 조형성과, 희소성을 부여하여 소장자에게 또 다른 명분을 제공하는 새로운 용기 개발이 요구되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 參 考 文 獻

- 김광수 · 박학봉 · 송경용 · 송죽헌 공저, 『화훼장식과 꽃꽂이』  
도서출판 아카데미서적, 1994
- 김병익, 『도예장식기법』, 태학원, 2002
- 고하수, 『한국 꽃 예술사』, 하수출판사, 1993
- 고하수, 『한국 꽃꽂이의 역사』, 하수출판사, 1976
- 동아출판사백과사전부, 『동아원색세계백과사전3』, 동아출판사, p57
- 손관화, 『아름다운 생활공간을 위한 화훼장식』, 중앙생활사, 2004
- 정이성, 『우리나라 수반의 약사』, 돌사랑철학 제2집, 한수연우회, 1994
-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
- A. Jaffe, 『미술과 상징』 이희숙 역, 열화당, 1979, p.153
- 권영은, 「도자제 수반 개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8
- 김은주, 「조형성이 강조된 도제 화기 제작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 윤진, 「도제 화기 제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이승희, 「실내 도제분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조충희, 「점토의 물성 표현을 이용한 화기제작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ABSTRACT

## A Study on Ceramic Water Bowl

Jung, Jea Eun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What desires to put it closer to life through beauty can be said to be very human behavior. A change in living environment and dwelling environment according t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which come to occur with approaching modern society, caused a reduction in natural elements like forests and water within city. Accordingly, the beauty and composure, which are given by nature, came to be difficult to be found.

This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allows economic abundance and living convenience to be enjoyed. However, this social form gives mental uneasiness and stress to modern people, thereby being a point of time that requires the new awareness on nature.

In this study, the individual experience and significance are granted and moulded while recalling memory and yearning by having materials as mountain, rock and flower in the beautifully natural scenery. And, by being combined with containers in diverse forms, the objet-styled

ceramic water bowl in new concept is manufactured, which can contain flowers and plants amid nature.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eel small nature in the midst of living space, and to enjoy mental stability and calmness.

The earthenware in the process of work was mixed and used the mixed soils of containing chamotte and the Seinto soil of containing iron content, in order to induce the work size, surface texture, and the original discharge.

The expression technique was used the cutting method aiming at the digging technique, which is expressed a property of matter in soil the most frankly, and to implement the beauty in the plastic form. Diverse containers, which have the function of water bowl, were removed any decoration and were performed Wheel Throwing, which is easy to be simplified. In order to express the deep and diverse colors in nature, the coloring was added several times by using Jaeyu, Fe, Heukyu, and Mn. And, partially, Terrasigillata, pigment, and Sugeum were used.